

기사입력:07/01/2014 15:43

인쇄하기

"유리천장 깨려면 목소리 내야"



아시안경제인협회 주최로 지난달 30일 맨해튼에 있는 맥그로우힐파이낸셜 강당에서 열린 '본투리드'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아시안여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

"아시안 여성들이 직장 내 유리천장 깨려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백인 혹은 남성들이 주도하는 기업환경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인정받은 아시안 여성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영리단체 아시안여성경제인협회(AWIB.회장 보니 웅)는 지난달 30일 맨해튼에 있는 맥그로우힐파이낸셜 강당에서 '본투리드: 유리천장을 넘어서(Born to Lead: Beyond Glass Ceiling)'를 주제로 패널리스트를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미디어 업체인 스크립스 네트워크 인터랙티브에서 전략개발 담당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한인 줄리 유씨와 맥그로우힐파이낸셜의 마틴 천 최고전략책임자 마케팅업체인 페렐라 웨인버그 파트너스의 수잔 소 글로벌 마케팅 책임 파트너 JP모건 시큐리티 M&A팀 애누 에이엔가 매니징 디렉터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이들은 "직장내에서 아시안 특히 아시안 여성들은 조용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에 갇혀있다"며 "그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할 때 나의 의견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 파트너는 "직장에서 왜 아시안 여성들은 늘 소극적인 모습인가"라며 "가끔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먼저 나서서 등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때 미국에 온 유 부사장은 "오랜 시간을 미국인들과 비슷해 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시안 컬쳐'가 나에게 재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강점을 발견해 이를 조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